

# 圖書館의 積極的 奉仕

— 圖書館의 機能과 意味 —

金 世 翹  
( 梨大圖書館學科 教授 )

## 1. 圖書館現象

圖書館이 社會에 現實的으로 存在하고 그 固有의 機能을 社會에 對하여 행사하고 있는 狀態를 圖書館現象이라고 부른다.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資料를 매 디어르하여 情報傳達이라는 具體的인 作用을 하고 있고 라이부라리언이 그 施設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며 奉仕手段을 動員하여 바람직한 社會的 機能을 特히 情報分野에서 發揮하고 있는 事實은 客觀的으로 認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的으로 經驗되고 있다. 圖書館의 機能은 나라에 따라 또 圖書館에 따라 千差萬別이지만 도서관에서는 利用者和 라이부라리언이 資料의 利用을 媒介로하여 相互 密接한 關係로 結合되고 있으며 도서관을 中心으로 組織的 社會集團을 形成하고 있으며 大學이나 學會나 研究기관과 같이 研究調査를 目的으로 하는 機能集團이기도 하다. 다만 圖書館의 利用자가 다른 集團의 構成員처럼 固定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學校나 大學, 學會 같은 機能集團에 比하면 社會集團으로서의 親和力과 結集力이 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學校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 그리고 特殊전문도서관의 利用者の 경우는 다르지만 公共圖書館에서는 이러한 現象이 甚하게 나타난다. 공공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그 地域社會의 住民이라는 具體的이고 一次的인 利用者 設定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構成力의 弱點을 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圖書館利用에 對한 拘束力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利用 與否에 對한 自由意思를 前提로 하기 때문에 中高等學校나 大學같은 半強制的인 構成力이 弱해 질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社會組織으로서의 도서관현상을 형성하는 機能은 利用者和 資料를 結合시키는 媒介作用인데 이 매개작용도 어떤 施設이 없으면 發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매개작용에 앞서서 施設이 우선적으로 存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施設은 도서관이란 말로 表現되지만 도서관은 設置者의 目的이나 意圖에 따라서 도서관의 形態나 그 機能의 性格이 決定될 수 밖에 없다.

만약 도서관 설치자가 教育을 目的으로 하면 그 도

서관은 학교도서관이 될 것이고 一般的인 成人教育을 目的으로 해서 設置하면 公共圖書館이 될 것이며 또한 어떤 特定 主題의 研究가 主目的이라면 專門研究도서관이 될 것이며 教育和 研究 두가지를 합쳐서 目的으로 하여 설치하면 大學도서관이 될 것이다. 大學도서관 중에서도 研究를 더 重要視할때 研究 圖書館이 되고 教育和 教養을 보다 優先시킬때 學部도서관(Undergraduate library)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서관이 館種別로 分化되는 것은 그 도서관 設置의 目的과 意圖의 性格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도서관의 機能이나 用途가 서로 다른 形態로 發展되고 利用者の 도서관에 對한 要求나 態度도 달라지게 되며 利用者の 構成性분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은 絕對的인 制約이 되는 것은 勿論 아니고 館種에 관계 없이 圖書館의 本質은 같은 것이며 그 社會的 機能도 모든 圖書館에 本質的으로 普遍性을 지니는 것이다. 圖書館史的인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도서관의 館種에 對한 意識은 거의 없었거나 있어도 微微한 것이었지만 近代社會에 와서 비로서 設置者의 意圖나 目的에 뚜렷한 差異가 나타났다. 그렇다고 設置者의 一方的 意圖에 의하여 설치된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社會的 規範이나 利用者の 希望 文化 發展의 趨勢를 意識하면서 構想된 것이다.

비록 近代社會를 맞이하여 도서관의 機能이 多樣해지고 여러가지 館種이 생기기는 했어도 그것으로서 利用者の 도서관 利用을 制約하거나 拘束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 圖書館의 公開性, 民主性, 自由性을 감안할 때 學校圖書館의 利用자가 公共도서관을 利用할 수도 있고 公共도서관의 이용자가 專門 大學도서관의 利用자가 되어도 異常할 것이 없다. 利用자가 能力만 있으면 자신이 必要로 하는 資料를 어느 도서관에서도 利用할 수 있는 것이 常識이다. 또한 이와같은 公開性은 地域社會뿐만 아니라 全國內的으로 나아가서는 世界的인 規模에서도 可能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利用者の 能力의 差異 도서관 勢力의 隔差때문에 어느 정도의 制約이 存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II. 媒介現象

個人이건 團體이건 도서관을 設置하는 者의 意圖나 目的은 資料와 利用者를 結合시키는 橋梁을 마련하고 자 하는 作業이기 때문에 그 行爲는 바로 媒介作用이다. 이와같은 媒介作用은 도서관 現象을 具體化시키는 核心的 作用이기도 하다. 이것을 도서관의 一次 媒介作用이라고 부른다. 이와같은 一次 媒介作用의 研究는 圖書館學中에서 圖書史나 社會現象學 그리고 行政學의 領域에서 다루어 질 問題이다. 우리나라에 局限된 것은 아니지만 大體로 韓國圖書館이나 도서관학의 盲點은 이와같은 本質 根源的 考察의 結果에 있다. 思想이나 意識의 前提없는 行爲란 一時的인 것이며 外形의인 것이 되기 쉽다. 韓國의 도서관이 社會의 深層에 作用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서 그 原因을 찾아야 마땅하다.

이와같은 一次 媒介作用을 實現시키기 위해서는 必然的으로 두개의 面으로 分化 展開시켜야 한다. 即 具體的인 施設인 도서관 건물과 媒介作用을 하는 사람인 도서관직원이다. 여기서 도서관건물은 形態의 媒介體(Physical media)이며 도서관직원은 人體媒介體(Personal media)라고 부른다. Physical media는 도서관 건축학의 領域에서 研究되고 Personal media는 도서관 학교육의 領域에서 다루워지게 된다. Physical media와 Personal media를 合쳐서 二次 媒介作用(Quadratic mediation)이라 부른다.

二次 媒介作用이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기 위해서는 人體媒介體인 라이부라리언이 두개의 形態로 分化 展開되어서 媒介作用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間接的 道具 媒介體(indirect tools media) 또 하나는 直接的 人間媒介體(direct personal media)다.

도서관의 媒介作用을 圓滑히 추진시키기 위한 作業中 가장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分類 作業과 目錄編成이며 其外의 各種 書誌, 索引, 抄錄 등의 二次 資料作成이다. 이러한 作業을 一般的으로 도서관의 間接奉仕 또는 Technical Service 라고 부르며 도서관 직원이 利用者를 위해 힘드리는 間接的 努力이다.

이것은 indirect tools media 인데 大量의 情報資料와 利用者를 結合시켜주는 必要不可缺한 道具이다. 이런 것은 目錄學, 分類學, 書誌學의 領域에서 研究된다. 그 反面에 일반적으로 直接奉仕 또는 Reader service 라고만 하는 參考業務나 讀書相談, 讀書案内, 讀書指導, 圖書利用指導 등은 도서관 직원이 利用者와 直接的으로 結付되어서 이루어 지는 作用이다. 이것을 direct personal media라 부르며 이 두개를 合쳐서 三次 媒介作用(Cubic mediation)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參考業務, 讀書指導論, 教育學의 領域에서 다루워 진다. 그외에 館外活動도 있는데 이것은 社會 調查, 廣報學의 領域에서 研究 될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現象을 分析하면 一次 媒介作用 即 設置者의 意圖나 目的에 의한 것과 그것이 分化되어 二次, 三次의 媒介作用을 거쳐서 三重의 人的, 物的 媒介로 構成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 三重의 媒介作用이 서로 緊密하게 相互作用을 이르고 有機的으로 作用할 때 圖書館現象은 뚜렷한 社會機能을 發揮하게 된다. 이러한 機能을 背景에서 支持해 주는 도서관인들의 強力한 奉仕精神이 發揮될 때 그 社會的 効用은 더 한층 增大해지고 社會的 支持度도 높아 질 것이다. 韓國에 近代 도서관학이 導入된지 10여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學問的 構成力을 充分히 이룩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비록 韓國만의 現象은 아닐지라도 時期的으로 落後된 感이 없지 않다.

우리는 模倣과 방향에서 脫皮하기 위하여 도서관학이나 情報科學(이 두개가 本質的으로 같은 것이지만)이 社會教育學의 面에서 研究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時點에서 이런 客觀的 要求를 外面한다면 韓國의 圖書館學乃至 情報科學은 數十年의 後進性을 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도서관이 가지는 社會的 現象에 대한 뚜렷한 認識없는 아무리 큰 建物과 數 많은 資料를 가지고 奉仕를 해도 언제까지나 社會組織의 深層에 파고 들어 갈 수는 없을 것이며 社會의 支持의 圈外에 서게 될 것이 分明하다.

時間的으로 空間的으로 이제는 이 나라의 도서관이나 도서관학의 이와 같은 側面에서 檢討될 段階에 왔다고 뜻 있는 司書들은 믿고 있다.

## III. 積極的 奉仕

도서관의 적극적 奉仕라는 것은 圖書館에 利用者를 많이 接近시키는 일과 圖書館資料의 貸出業務(參考奉仕를 包含시켜서)의 擴大를 意味한다. 도서관史 6,000年의 歷史를 뒤돌아 보면 古代 貴族社會의 도서관이나 中世 封建社會의 도서관은 不問에 불이더라도 近世 市民社會 擡頭以後의 도서관과 라이부라리언의 努力은 여기에 集中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이 一部 特權階級 즉 貴族이나 僧侶나 富豪나 學者들에게만 有用했던 時代를 除外 하고 圖書館이 一般 市民大衆에게 奉仕하고자 한 以來 그들은 利用者를 도서관에 많이 오게 하고 도서관 資料가 그들에 의하여 많이 利用되기를 期待했고 라이부라리언들은 이러한 期待를 向하여 努力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도서관을 살펴 보면 반드시 우리의 期待를 滿足시켜 준 것은 아니었

다. 美國처럼 처음부터 自由 平等的 民主의 章想에서 도서관이 생기고 發展해 온 나라는 별문제로 치더라도 오랜 傳統에 얽매인 餘他 西洋各國의 도서관이 一般大衆에게 滿足할 상태로 開放된 것은 最近 100年 以內의 일이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는 事態가 훨씬 悲觀的 이다. 原來가 東洋은 적어도 近代의 意味의 도서관의 不毛地 帶인데다가 日本 圖書館의 좋지 못한 影響을 오래 동안 받아 왔기 때문에 圖書館은 오늘에 이르기 까지 一般大衆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相當한 抵抗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은 주로 公共도서관을 意味하고 있으나 大學圖書館의 경우도 決코 例外가 되지 못한다.

近代圖書館의 한결 같은 여망은 利用者의 圖書館에의 接近과 資料의 大量貸出 이라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우리나라 도서관도 바로 이 點에 대하여 라이부라리언의 關心이 集中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至上使命을 저해하는 要素를 果敢히 除去시키기에 온갖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努力이야말로 圖書館中興의 時點에 선 우리의 歷史的 使命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너무나도 常識的인 것을 새삼 強調하는 理由는 이 當然한 事實이 아직도 바람직한 狀態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대한 傳統的이며 왜곡된 이미지가 아직도 도서관界에서 完全히 拂拭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勿論 本質的으로 資料의 利用이라는 面과 資料의 保存이라는 面이 共存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文獻資料의 保管이나 保存은 예나 지금이나 變할수 없는 도서관의 使命이다. 그러나 이것 조차도 保管이나 保存 그 自體에 意味가 있는 것은 決코 아니다. 貴重한 理由는 그것이 文化繼承의 미디어로서 貴重하게 利用 될 때에 비로서 그 貴重함에 對한 普遍性이 생기기 때문이다.

圖書館의 모든 組織이나 活動이 오직 利用을 第一主義的으로 생각 해야 함은 아무리 거듭 強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圖書館施設이 利用第一主義로 마련되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한다. 受書나 目錄 分類가 利用을 위해 한다는 것은 말할 餘地도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事實은 利用者보다 圖書館自體의 內部的 要求에 忠實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受書과정에서 利用者의 希望이나 要求가 보다 強力하게 反映되기를 期待한다. 勿論 도서관 自體가 가지는 規範의 要求가 있다. 即 도서관은 하나의 教育機關이며 冊房이나 公園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폐쇄적 분위기에서 選擇되고 受書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利用者의 意思

나 希望이 受書과정에서 反映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도서관학의 ABC에 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황하게 言及할 必要는 없지만 보다 開放的이어야 하겠다는 圖書館의 本質的 認識을 促求하지 않을 수 없다. 分類 目錄에 있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도서관의 現實에 나타나는 分類 目錄의 內容의 意味에 대하여 利用者는 關心이 있을까, 더구나 도서관 利用에 對한 個人的 訓練이 不足한 韓國의 경우 이것은 하나의 문제로 提起될 수 있다. 勿論 한국에서 現행 分類 目錄外에 다른 보다 좋고 便利한 資料檢索의 方法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利用者의 關心의 圈外에서 遊離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分類 目錄이 手段이 아니고 目的으로서 發展해 나가는 듯한 印象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한다. 보다 쉽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간략한 方法이 개발되어야 할 줄로 안다. 當然한 말이지만 分類 目錄이 利用者를 위해 만들어져야지 決코 도서관을 위해서 만들어 질 수는 없다. 모름지기 도서관의 모든 活動은 오직 利用者에게 便利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서관의 태도이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書庫의 藏書는 얼마나 그 數가 많다는 것 보다 그것이 얼마나 많이 利用 되느냐에 따라서 評價될 것이며 書庫는 글자 그대로 冊을 놓아두는 倉庫로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열람실이 될 수 있는 그런 方向으로 꾸며져 나가야 한다는 近代圖書館의 理念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고려될 段階에 이르렀다고 나는 생각한다. 冊이 분실되는 것은 우리나라 도서관 單의 事件이 아니다. 이러한 紛失과 損失을 最少限으로 막으면서도 書庫가 開放될 수 있는 줄로 안다. 특히 大學圖書館이나 特殊專門圖書館, 學校도서관 같은 데서는 그것이 可能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도서관이 적지 않게 存在하고 있다. 비단 書庫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모든 部門이 지금보다는 더 開放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利用者로 하여금 손쉽게 도서관에 接近시키고 도서관과의 親和力을 高調시키는 것이 오늘의 도서관의 立場이어야 할 것이다. 財產管理나 事務監査 같은 客觀的 條件이 이것을 막고 있는 現實도 無視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도서관 管理者나 라이부라리언의 思想이나 意識構造 속에 이와 같은 前近代的인 要素가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의 解決없이는 우리나라 도서관 봉사의 발전은 그야말로 百年河淸을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몇해 前에 國立中央圖書館에 大英斷을 내려서 入館者들이 玄關正門으로 出入하게 한 것은 이런 意味에서 지극히 當然한 일이지만 한국 도서관 奉仕의 進一涉한 처사라고 높이 평가 될 것이다. 또한 국회도서관에서

꾸준히 進行시키고 있는 書誌事業은 새로운 도서관 이용자를 開發시키고 圖書館에 대한 社會的 關心을 높히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두가지 例로서도 알 수 있듯이 圖書館을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도서관인 스스로의 着眼이나 努力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如實히 나타내고 있다.

韓國의 도서관에 所藏되고 있는 藏書量이 貧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事實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藏書가 70~80萬卷이고 國立中央도서관이 40~50萬卷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 比하면 엄청난 貧困相이다. 美國의 國會圖書館이 2,300萬卷이라고하며 어지간한 大學도서관도 500~600萬卷을 가지고 있는 것과 比較하면 알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정도의 藏書도 充分히 利用되지 못하고 書庫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닐까, 勿論 도서관 書庫의 모든 資料가 다 可用圖書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現象이 두두러지게 눈에 띈다. 이것은 目錄이나 書誌奉仕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新聞에서 가끔 어느 圖書館에서 어떤 稀靚書가 나왔다고 大書特筆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圖書館으로 볼 때 不名譽스러운 일이다.

整理가 제대로 되어 있고 目錄이 完備되었든들 이렇게 놀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難問題가 山積해 있다. 너무나 험준한 길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다. 司書의 자질문제, 보수문제, 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政策의 문제, 社會的 輿件문제 등등 우리를 괴롭히는 要素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느리기는 하나 한거름 한거름 나아져 가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이 發展의 嚮도를 促進시켜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圖書館을 하나의 社會的 機能으로서 社會的 장치로서 이 社會에 定着시키는 作業을 위하여 우리 모든 라이부러리언들은 不退轉의 決意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努力은 거듭 말하거나와 圖書館人口를 增加시키고 쉽게 接近할 수 있게 하고 圖書館 資料 利用量의 擴大에 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보는 見解로서는 先進國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나라 程度의 國力을 가진 나라의 圖書館 事情에 比할 때 決코 悲觀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識見과 能力을 가진 라이부러리언들의 數도 어느나라에 比해서도 뒤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希望이며 財產이기도 하다.

## 도큐멘테이션 用語解説試案

司 空 哲

<圖協專門委 用語分科委員長>

### 메들라스 MEDLARS

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의 약자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세계 각국의 의학문헌을 전자계산기로 처리하는 IR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하여 출판되는 자료로는 의학 분야 색인지의 제1인 Index Medicus를 비롯하여 Medical Subject Headings, List of Journals Indexed, Bibliography of Medical Reviews 등이 있다.

### 미니카아드 방식(—方式) Minicard System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한 정보검색 방식의 하나로 미국 Recordak 사(社)에서 개발한 것. 16×32mm의 필름 Chip에 코오드와 문헌상(像)을 찍어 넣고 2,000장씩의 Chip을 막대기에 꽂아, 이것을 단위로 처리한다. 원문 촬영에서 검색된 자료의 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대규모 시스템이다.

미라코오드 방식(—方式) MIRA Code System  
MIRA는 Microfilm Information Retrieval Access

의 약자로 미국 Recordak 사가 개발한 마이크로 필름에 의한 정보검색 방식의 하나이다. 이 방식은 16mm 두루마리(Roll)필름에 2진법 3자리수의 코오드를 광정관(光電管)으로 판독하여 해당 화면(畫面)을 검색하는 두루마리 필름 검색방식이 있다.

### 이미지 콘투로를 방식(—方式) Image Control System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한 정보검색 방식의 하나로 미국 Recordak 사가 개발한 것이다. 이 방식은 촬영할 때 각 화면 옆에 Brip가 자동적으로 촬영되도록 되어 있고, 이 Brip를 기계적으로 계수하여 필요 화면을 검색하는 16mm 두루마리 필름 검색 방식이다.

### 인용색인(引用索引) Citation Index

발표된 논문에 인용된(참고된) 문헌을 조사하여 인용된 저자명, 표제의 퍼어뮤터얼(Permuted Term의 준말) 등을 색인한 것으로 자료의 선택기준, 자료의 수명 측정에 유용하다.

이 방법이 처음 실시된 것은 1873년 미국의 Shepard Citation이며 과학기술문헌에 적용하여 실용화 된 것은 1963년 과학정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전자계산기로 Science Citation Index를 간행한 것이 처음이다. 이것은 필재 자기 테이프로도 판매되고 있다. (31면 하단에 계속)